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

유재언¹⁾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어린이집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대처전략 및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도 1월 당시의 모든 어린이집 일반특성 및 정원충족률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와 그 격차의 추세를 분석한 후, 연도별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201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1월 88%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84%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의 변화는 일반특성에 따라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 격차가 커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원충족률과의 관련성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지역규모, 설립유형 중 민간 및 부모협동, 영유아 반 구성,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였다. 어린이집 일반 특성 중에서 특수보육 실시여부,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 및 법인·단체에 따른 정원충족률 격차는 최근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위탁운영, 평가인증, 설립유형 중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에 따른 정원충족률 격차는 최근으로 갈수록 점차 커졌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일반특성, 보육정책, 정원충족률, 빅데이터

1) 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후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시켰고, 그 결과 어린이집 이용률과 개소수가 늘어났다. 2011년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만 0-2세, 5세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0-5세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였다(신윤정·유재언·김혜영·윤자영, 2013). 이에 따라 어린이집수도 2009년 12월 말 35,550개소에서 2013년 12월 말 43,770개소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2013년에는 양육수당 지원금액도 늘어나면서 2012년에 어린이집을 다녔던 영유아 76,804명이 2013년에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아동수가 줄었다(함영진·강소영·김경준·이희종, 2013). 더구나 2013년과 2014년의 총 출생아수는 각각 436,455명과 435,300명으로 2012년 484,550명보다 약 5만 명 적어(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건수 및 통태율 추이, 2015) 어린이집 이용 수요인 영유아수도 감소하였다. 4/5 정도의 시군구 지자체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해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지만(이혜연, 2013) 양육수당 확대와 출생아수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2014년 12월 초에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행동을 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2015년 1월에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여(박선하, 2015) 어린이집 운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어린이집 일람 현황 및 월별 폐쇄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2년 1월 말 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폐쇄된 어린이집만 1,202개소에 이르렀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지난 6년은 영유아 육아정책의 격변기였다. 본 연구는 지난 6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이 높았고, 어떤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이 낮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일반특성으로 세분화하고, 지난 6년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

지 돌아보고자 한다. 인가정원 대비 현원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자체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인가제한을 결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정원충족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 정원충족률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통해 영유아가정이 보다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어린이집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영유아가정이 선호하는 어린이집들은 선택을 많이 받으므로 정원충족률이 높고, 이와 반대로 영유아가정이 기피하는 어린이집들은 선택을 적게 받으므로 정원충족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의 관련성이 지난 6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함으로써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 선택 변화도 알아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가정의 학부모들을 심층면접하거나 설문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조은진, 1998; 권경미, 2012; 김지혜·이대균, 2013; 서소정·하지영,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가정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설립유형(서소정, 하지영, 2014), 보육프로그램(김갑순·김남연·이은형, 2012), 평가인증 여부(정찬우, 2008), 취약·특수보육 실시여부(전병오, 2011; 김천국·김진희, 2012)와 같은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이용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거나 설문조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특정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소수의 학부모들인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된다. 둘째, 어린이집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면 설문문항의 의미가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아 타당도가 낮아지고 측정오차가 발생한다. 어린이집을 통해 심층면접 참여자를 섭외하면 이렇게 섭외된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선택편의 문제도 발생한다. 셋째, 학부모가 답변한 어린이집 선택의향이 선택행위와 다를 수 있다. 넷째, 학부모들이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이 시대에 다를 수 있는데 학부모들의 선택 행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 하거나 심층면접하는 연구의 제한점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을 전수조사 하거나 대표성 있는 어린이집들을 표본추출 및 실태조사 하여 보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수행된 2004년,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영유아가정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10%에 해당하는 3,204개소 어린이집을 확률비례표집과 비확률표집 하였다. 한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모집단으로 하여 어린이집유형, 영유아정원, 지역으로 비례배분 층화표집 하여 4,000개소 어린이집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은 달랐지만, 두 번 모두 인가년도, 소재지의 지역규모, 설립주체별 시설유형, 장애아 배려 유무, 정원, 현원, 평가인증 참여여부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유희정 외, 2009; 이미화 외, 2012).

2009년과 2012년의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고 다양한 항목과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09년과 2012년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통계보다 훨씬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적인 통계자료로서의 대표성도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사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내용을 모두 보고서에 담아야 했기 때문인지 기술통계 및 집단비교 위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09년과 2012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두 조사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3년 사이에 어린이집 관련하여 추세가 그만큼 크게 변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두 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2009년과 2012년의 조사결과가 상이한 이유가 3년간 어린이집 관련한 추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라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을 수 있는데, 2012년 보육실태조사가 이뤄진 지 3년이 흐른 2105년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울러 서로 다른 표본추출 방법으로 인해서 조사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6년 간 당시 전국에 있던 모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각 년도를 비교함으로써 표본추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순수한 추세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2013년 들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정부3.0이 시행되고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의 조항이 신설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어린이집 정보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도 공개되고 나서는 일반 연구자들도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유재언, 2014a; 유재언, 2014b).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설립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규모,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인증 등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이나 운영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정원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유재언, 2014a). 특히, 정원충족률은 정원, 운영기간, 설립유형,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보육아동 연령대, 특수·취약보육 실시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재언, 2014b). 그런데 유재언(2014b)의 연구는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정원충족률의 관련성을 2014년 1월 한 시점에서만 분석하여 이 둘의 관련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지 지속적이거나 변화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개별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시군구의 어린이집 공급정도와 양육수당예산이 오히려 정원충족률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정원충족률의 관련성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점에서 분석하고 연도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어린이집 공급정도와 양육수당 확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제한점들과 본 연구에서 보완하려는 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선택편의, 측정오차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학부모 대신 대표성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을 표본추출 한 3년 주기 실태조사들에서 시점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표본표출 방식 때문인지 추세변화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최신 현황과도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의 모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고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연도별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기술통계 및 집단비교만 하거나 한 시점을 횡단분석 하여 어린이집 공급 및 양육수당 금액 증가의 효과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6개년도 횡단분석결과와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집 공급정도 및 양육수당 금액 확대의 외부환경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어린이집이 지난 6년 간 지나온 자취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기술통계를 구해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격차와 그 격차의 변화를 알아본다. 아울러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횡단면 중다회귀분석하여 다른 일반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일반특성에 따른 충족률 차이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010-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격차는 어떠한가?
- 2) 2010-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격차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는 지난 6년 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세를 살펴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월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 사례수이기도 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수는 2010년 1월 35,003개소, 2011년 1월 38,237개소, 2012년 40,006개소, 2013년 1월 42,592개소, 2014년 1월 43,909개소, 2015년 1월 43,776개소였다.

2010년-2015년 각 년도 1월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보육정보공개 OPEN API 어린이집일람 현황을 통해 수집

하였다. 어린이집일람 현황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년도 1월을 기준년월로 설정하고, 시군구별 전체 어린이집일람 현황을 검색하여 엑셀파일로 저장하였다. 엑셀파일로 저장된 각 년도 시군구별 어린이집일람 현황은 한 파일에 합쳐서 각 년도 전국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로 만들었다. 전국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는 어린이집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로 된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은 숫자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만든 엑셀파일 자료는 기술통계 및 중다회귀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 Stata13.0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서 통계분석이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다시 저장하였다.

2. 자료분석 및 변수 설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을 알아보기 위해 6개년도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2010년-2015년 각 년도 1월의 인가정원 대비 현원 비율로 계산된 정원충족률이다. 중다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해당 시점에서의 정원, 운영기간, 지역규모, 운영주체 유형,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영유아 반 구성, 특수보육 여부이다. 정원은 어린이집 인가정원(명) 연속변수이며 중다회귀분석에서는 해석할 때 보다 유용한 계수값과 상수값을 구하기 위해 전체평균으로 중심보정 하였다. 운영기간은 각 년도 1월에서 어린이집 인가년도를 뺀 값인 연속변수이며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정원과 마찬가지로 전체평균으로 중심보정 하였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된다. 3개 유형을 가변수로 만든 후,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기준집단인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와 농어촌 유형의 2개 가변수를 투입하였다. 설립유형은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직장으로 구분된다. 7개 유형을 가변수로 만든 후,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기준집단인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6개유형의 가변수를 투입하였다.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는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1, 받지 않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위탁운영 여부는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1, 직영을 하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인 경우 1, 미인증어린이집인 경우 0이다. 영유아 반 구성은 0-2세 영아만 보육, 3-5세 유아만 보육, 0-5세 영유아 보육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3개 유형을 가변수로 만든 후,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기준집단인 0-5세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0-2세 영아만 보육, 3-5세 유아만 보육의 2개 가변수를 투입하였다. 특수보육은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통합, 방과후 전담·통합, 시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 서비스 중 일부라도 실시하는 경우 1, 이러한 특수보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일반특성 기술통계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표 1>과 <표 2>를 통해 정원충족률과 일반특성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원충족률은 2010년 1월에 평균 78.7%로 가장 낮았고, 2013년 1월 평균 87.9%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4년 1월과 2015년 1월에는 2013년 1월보다 감소하여 84%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 중에서 첫째, 정원 평균은 2010년 1월 41.6명에서 2013년 1월 40.5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6년 내내 40-41명 수준으로 변화폭은 작다.

둘째, 운영기간 평균은 2010년 1월 7.2년에서 2015년 1월 9.9년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셋째, 지역규모를 보면, 중소도시 비중이 42-44%대로 가장 크고, 이어서 대도시 36%였으며, 농어촌 비중이 18-20%로 가장 적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집수 변화도 살펴보겠다. 대도시는 2010년 1월 12,757개소에서 2015년 1월 16,014개소까지 매년 늘어났다. 반면, 중소도시는 2010년 1월 15,170개소에서 2014년 1월까지 19,731개소로 늘었으나 2015년 1월 19,355개소로 줄어들었다. 농어촌의 경우 2010년 1월 7,076개소에서 2013년 1월 8,527개소로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2013년 한 해 동안 275개소가 줄었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다시 152개소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

넷째, 설립유형의 비중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은 2013년 1월(54.1%)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비중이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에 이어서 민간어린이집이 33-37%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비중은 2010년 1월 37.6%에서 2013년 1월 33.8%까지 감소했고, 그 이후에는 유지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다음으로 국공립 비중이 5%대였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부모협동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설립유형을 어린이집수로도 살펴보겠다. 가정어린이집은 2014년 1월 23,676개소까지 꾸준히 늘었으나, 2014년 한 해 동안 352개소가 감소하였다. 법인·단체 등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감소 폭이 적긴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폭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표 1〉 2010년-2012년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및 일반특성

변수	2010.1. 평균(표준편차)	2011.1. 평균(표준편차)	2012.1. 평균(표준편차)
정원총족률	78.7(23.1)	82.0(22.2)	83.5(21.0)
정원(명)	41.6(39.1)	40.9(38.8)	40.7(38.7)
운영기간(년)	7.2(5.4)	7.6(5.5)	8.2(5.6)
변수	2010.1. 개소(%)	2011.1. 개소(%)	2012.1. 개소(%)
지역규모	35,003(100.0)	38,237(100.0)	40,006(100.0)
대도시	12,757(36.5)	14,079(36.8)	14,639(36.6)
중소도시	15,170(43.3)	16,350(42.8)	17,294(43.2)
농어촌	7,076(20.2)	7,808(20.4)	8,073(20.2)
설립유형	35,003(100.0)	38,237(100.0)	40,006(100.0)
국공립	1,902(5.4)	2,046(5.4)	2,124(5.3)
가정	17,134(49.0)	19,534(51.1)	20,827(52.1)
민간	13,156(37.6)	13,822(36.2)	14,178(35.4)
법인·단체	918(2.6)	885(2.3)	879(2.2)
사회복지법인	1,467(4.2)	1,468(3.8)	1,453(3.6)
부모협동	65(0.2)	76(0.2)	91(0.2)
직장	361(1.0)	406(1.1)	454(1.1)
인건비 지원받음	4,471(12.8)	4,650(12.2)	4,698(11.7)
인건비 미지원	30,532(87.2)	33,587(87.8)	35,308(88.3)
위탁운영	328(0.9)	1,588(4.2)	1,809(4.5)
직영	34,675(99.1)	36,649(95.9)	38,197(95.5)
평가인증	14,543(41.6)	21,666(56.7)	24,464(61.2)
미인증	20,460(58.5)	16,571(43.3)	15,542(38.9)
영유아 반 구성	35,003(100.0)	38,237(100.0)	40,006(100.0)
0-2세만 보육	14,864(42.5)	17,966(47.0)	20,223(50.6)
3-5세만 보육	1,299(3.7)	1,141(3.0)	965(2.4)
0-5세 보육	18,840(53.8)	19,130(50.0)	18,818(47.0)
특수보육 실시	6,089(17.4)	7,976(20.9)	9,108(22.8)
특수보육 미실시	28,914(82.6)	30,261(79.1)	30,898(77.2)

〈표 2〉 2013년-2015년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일반특성

변수	2013.1. 평균(표준편차)	2014.1. 평균(표준편차)	2015.1. 평균(표준편차)
정원충족률	87.9(18.8)	84.4(20.3)	84.7(20.2)
정원(명)	40.5(38.9)	40.8(39.1)	41.2(39.3)
운영기간(년)	8.6(5.9)	9.2(6.0)	9.9(6.2)
변수	2013.1. 개소(%)	2014.1. 개소(%)	2015.1. 개소(%)
지역규모	42,592(100.0)	43,909(100.0)	43,776(100.0)
대도시	15,606(36.6)	15,923(36.3)	16,014(36.6)
중소도시	18,459(43.3)	19,731(44.9)	19,355(44.2)
농어촌	8,527(20.2)	8,255(18.8)	8,407(19.2)
설립유형	42,592(100.0)	43,909(100.0)	43,776(100.0)
국공립	2,215(5.2)	2,372(5.4)	2,508(5.7)
가정	23,019(54.1)	23,676(53.9)	23,324(53.3)
민간	14,405(33.8)	14,789(33.7)	14,828(33.9)
법인·단체	869(2.0)	867(2.0)	850(2.0)
사회복지법인	1,443(3.4)	1,440(3.3)	1,421(3.3)
부모협동	113(0.3)	133(0.3)	148(0.3)
직장	528(1.2)	632(1.4)	697(1.6)
인건비 지원받음	4,820(11.3)	4,979(11.3)	4,998(11.4)
인건비 미지원	37,772(88.7)	38,930(88.7)	38,778(88.6)
위탁운영	1,723(4.1)	1,936(4.4)	1,996(4.6)
직영	40,869(96.0)	41,973(95.6)	41,780(95.4)
평가인증	26,886(63.1)	31,382(71.5)	33,079(75.6)
미인증	15,706(36.9)	12,527(28.5)	10,697(24.4)
영유아 반 구성	42,592(100.0)	43,909(100.0)	43,776(100.0)
0-2세만 보육	24,000(56.4)	26,105(59.5)	25,834(59.0)
3-5세만 보육	860(2.0)	891(2.0)	803(1.8)
0-5세 보육	17,732(41.6)	16,913(38.5)	17,139(39.2)
특수보육 실시	9,343(21.9)	9,807(22.3)	9,725(22.2)
특수보육 미실시	33,249(78.1)	34,102(77.7)	34,051(77.8)

다섯째,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비중은 2010년 1월 12.8%에서 2013년 1월 11.3%로 조금 감소하였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중은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수는 2010년 1월 4,471개소에서 2015년 1월 4,998개소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 수와 비중은 2010년 1월 328개소(0.9%)에서 2012년 1월 1,809개소(4.4%)로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 1월 1,723개소(4.1%)로 잠시 감소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1,996개소, 4.6%)까지는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일곱째, 평가인증어린이집 수와 비중은 2010년 1월 14,543개소(41.6%)에서 2015년 1월 33,079개소(75.6%)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여덟 번째, 영유아 반 구성 비중을 보면, 2010년 1월에는 0-5세 영유아 보육이 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0-2세 영아만 보육이 42.5%이었고, 3-5세 유아만 보육은 3.7%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가 6년 간 급격히 늘어나 2015년 1월에는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중이 59.0%로 가장 커졌고,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중은 39.2%로 줄어들었다. 영유아 반 구성을 어린이집 수로도 살펴보겠다.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수는 2010년 1월 14,864개소에서 2014년 1월 26,105개소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2015년 1월에는 25,834개소로 2014년 한 해 동안 171개소가 줄었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수는 2010년 1월 1,299개소에서 2015년 1월 803개소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수는 2010년 1월 18,840개소에서 2014년 16,913개소로 줄어들고 있었으나, 2014년 동안 변화가 생겨 2015년 1월 17,139개소로 약간 늘었다.

마지막으로,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비중은 2010년 1월 17.4%에서 2012년 1월 22%까지 상승하고, 2015년 1월까지 21-22%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수는 2010년 1월 6,089개소에서 2014년 1월 9,807개소로 점진적으로 늘었으나 2014년에 추세가 바뀌어 2015년 1월에는 9,725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정원충족률이 어떠하였는지 <표 3>을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각 년도 정원평균과 운영기간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정원충족률이 약 10%p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월 약 4%p 감소하였고, 2015년 1월에는 2014년 1월에 비해 0.3%p-0.4%p 다시 증가하였다. 이어서 지역규모에 따른 정원충족률을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정원충족률이 높은 것은 6년 동안 동일하지만, 2010년 1월 0.5%p에 불과하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정원충족률 차이가 2013년 1월 4.9%p까지 벌어진 후, 2015년 1월에도 4.3%p 차이로 유지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설립유형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줄곧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았지만, 정원충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정어린이집이 2015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을 넘어서 7개 설립유형 중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아졌다.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1월 82.4%에서 2013년 1월 90.2%로 급증하였다가, 2014년 1월 이후 82%대로 다시 급감하기도 하였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6년 내내 75%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직장어린이집에 이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도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낮았다.

〈표 3〉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

변수	2010.1 정원충족률	2011.1 정원충족률	2012.1 정원충족률	2013.1 정원충족률	2014.1 정원충족률	2015.1 정원충족률
정원평균(명)	79.0	82.4	83.9	88.5	84.8	85.1
운영기간평균(년)	79.0	82.6	84.1	88.8	85.0	85.4
지역규모						
대도시	80.7	84.1	85.4	90.0	87.2	86.9
중소도시	77.7	81.6	83.4	88.3	83.9	84.8
농어촌	77.2	79.3	80.3	83.4	80.2	80.5
설립유형						
국공립	86.4	87.9	89.3	90.3	88.5	86.7
가정	77.7	82.0	84.3	85.6	85.8	86.9
민간	79.0	81.8	82.4	90.2	82.8	82.6
법인·단체	80.0	81.0	81.3	82.1	81.3	79.2
사회복지법인	78.1	79.5	79.4	80.6	77.9	76.5
부모협동	85.3	84.1	83.8	84.2	80.8	81.9
직장	70.3	71.9	72.6	74.5	72.0	72.7
인건비 지원받음	82.4	84.1	84.9	86.0	84.0	82.6
인건비 미지원	78.1	81.7	83.3	88.2	84.5	85.0
위탁운영	79.4	87.0	88.9	90.6	89.5	88.0
직영	78.7	81.8	83.3	87.8	84.2	84.6
평가인증	85.7	88.2	89.0	92.1	88.8	88.4
미인증	73.7	73.9	74.9	80.8	73.5	73.4
영유아 반 구성						
0-2세만 보육	77.2	81.9	84.3	90.0	86.0	87.0
3-5세만 보육	44.2	41.4	45.6	47.4	48.1	45.0
0-5세 보육	82.2	84.5	84.6	87.0	83.8	83.0
특수보육 실시	85.0	87.1	87.1	89.7	86.6	86.3
특수보육 미실시	77.3	80.7	82.5	87.4	83.8	84.3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정원충족률이 2010년 1월에는 4.3%p 높았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다. 2013년 1월 이후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보다 1.8%p 오히려 높아졌고, 2015년 1월 그 격차가 2.4%p까지 벌어졌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6년간 줄곧 높았으나, 그 격차는 년도에 따라 0.7%p에서 5.2%p까지 차이가 있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2%p-15.3%p 이상 높았다. 영유아 반 구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2013년 1월 이후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보다 높아졌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6년 내내 40%대에 불과하여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0%p 이상 낮았다. 마지막으로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2010년 1월 7.7%p 높았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 2015년 1월에는 2%p에 불과한 상황이다.

2. 2010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

<표 3>은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 정원충족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고, 그 격차가 지난 6년 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일반특성의 관련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반특성별로 정원충족률과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일반특성별 정원충족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인 모형1-모형6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1$),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모형1부터 모형6까지의 중다회귀분석에는 각 년도 1월 당시의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례수가 다르다.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2(2011년 1월)와 모형4(2013년 1월)가 나머지 모형에 비해 높지만, 모형1부터 모형6까지 모두 .17-.21 수준으로 차이는 적었다. 독립변수들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진단한 결과, 그 값이 가장 큰 독립변수도 7.27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우려되는 기준인 10보다 낮았고, 평균도 모형별로 2.2-2.5 수준이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4> 2010년-2012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2010.1.)		모형2(2011.1.)		모형3(2012.1.)	
	B	S.E.	B	S.E.	B	S.E.
중소도시(기준: 대도시)	-.65*	.26	-.83***	.23	-1.11***	.22
농어촌(기준: 대도시)	-1.80***	.32	-3.00***	.29	-3.64***	.27
정원(명)	-.08***	.00	-.08***	.00	-.06***	.00
운영기간(년)	.01	.03	-.05*	.02	-.07**	.02
국공립(기준: 가정)	9.05***	1.09	6.56***	1.15	5.08***	1.14
민간(기준: 가정)	.65	.36	.35	.32	-.07	.31
법인·단체(기준: 가정)	6.41***	1.06	5.06***	.99	2.92**	.96

(표 4 계속)

변수	모형1(2010.1.)		모형2(2011.1.)		모형3(2012.1.)	
	B	S.E.	B	S.E.	B	S.E.
사회복지법인(기준: 가정)	2.41*	1.12	1.63	1.03	-.54	.98
부모협동(기준: 가정)	6.33*	2.63	2.33	2.28	3.53	2.00
직장(기준: 가정)	-6.90***	1.18	-8.29***	1.07	-8.84***	1.00
인건비 지원(기준: 미지원)	-6.48***	.90	-6.09***	.82	-3.96***	.77
위탁운영(기준: 직영)	-2.84*	1.25	1.05	.86	1.63	.87
평가인증(기준: 미인증)	10.42***	.26	12.80***	.22	12.79***	.21
0-2세만 보육(기준: 0-5세 보육)	-5.93***	.33	-3.87***	.30	-1.75***	.29
3-5세만 보육(기준: 0-5세 보육)	-36.37***	.62	-39.76***	.62	-34.57***	.64
특수보육 실시(기준: 미실시)	4.95***	.32	3.99***	.26	2.66***	.24
상수	77.92***	.39	78.03***	.38	78.21***	.38
N(F)	35,003(439.92***)		38,237(636.24***)		40,006(579.69***)	
Adj R ²	.17		.21		.19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2010년 1월 현황인 모형1에서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정원충족률에 0.65%p 낮았고, 농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80%p 낮았다. 평균에 비해 정원이 1명 늘 어날수록 정원충족률은 0.08%p씩 낮아졌다. 설립유형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9.05%p), 법인·단체(6.41%p), 부모협동(6.33%p), 사회복지법인(2.41%p)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높았고, 직장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6.90%p 낮았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6.48%p 낮았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2.84%p 낮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충족률이 10.42%p 높았다.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0-2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5.93%p)과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36.37%p)의 정원충족률은 낮았다. 특수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충족률이 4.95%p 높았다. 그 밖의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2013년-2015년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4(2013.1.)		모형5(2014.1.)		모형6(2015.1.)	
	B	S.E.	B	S.E.	B	S.E.
중소도시(기준: 대도시)	-1.74***	.18	-3.18***	.20	-2.43***	.20
농어촌(기준: 대도시)	-5.34***	.23	-5.91***	.25	-5.10***	.25
정원(명)	-.06***	.00	-.03***	.00	-.02***	.00

(표 5 계속)

변수	모형4(2013.1.)		모형5(2014.1.)		모형6(2015.1.)	
	B	S.E.	B	S.E.	B	S.E.
운영기간(년)	.00	.02	-.05**	.02	-.18***	.02
국공립(기준: 가정)	3.87***	.91	2.75**	1.03	-.45	.91
민간(기준: 가정)	1.91***	.28	-.50	.30	-1.30***	.30
법인·단체(기준: 가정)	1.78*	.80	2.99**	.92	.61	.89
사회복지법인(기준: 가정)	-1.12	.81	-2.12*	.94	-3.88***	.90
부모협동(기준: 가정)	.05	1.59	3.14	1.60	3.04*	1.52
직장(기준: 가정)	-9.61***	.79	-10.40***	.83	-11.03***	.80
인건비 지원(기준: 미지원)	-4.16***	.69	-4.21***	.74	-3.03***	.69
위탁운영(기준: 직영)	2.41**	.71	4.06***	.76	5.20***	.73
평가인증(기준: 미인증)	10.46***	.18	14.11***	.20	14.04***	.21
0-2세만 보육(기준: 0-5세 보육)	-.49	.27	.86**	.31	1.34***	.31
3-5세만 보육(기준: 0-5세 보육)	-36.55***	.60	-30.53***	.64	-33.11***	.67
특수보육 실시(기준: 미실시)	1.50***	.21	1.59***	.23	1.56***	.23
상수	85.11***	.32	77.08***	.41	76.48***	.42
N(F)	42,592(697.80***)		43,909(650.29***)		43,776(640.79***)	
Adj R ²	.21		.19		.19	

* $p < .05$, ** $p < .01$, *** $p < .001$

2011년 1월 현황 자료를 사용한 모형2 결과도 일반특성별로 살펴보겠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0.83%p)와 농어촌(3.00%p)의 정원충족률은 낮았다. 정원이 평균에 비해 1명 늘어날수록 정원충족률은 0.08%p씩 낮아졌다. 운영기간이 평균에 비해 1년 길어질수록 정원충족률은 0.05%p씩 낮아졌다. 설립유형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6.56%p), 법인·단체(5.06%p)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높았고, 직장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8.29%p 낮았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6.09%p 낮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충족률이 12.80%p 높았다. 0-5세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0-2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3.87%p)과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39.76%p)의 정원충족률은 낮았다. 특수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충족률이 3.99%p 높았다.

2012년 1월 현황인 모형3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반특성별로 살펴보겠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충족률은 1.11%p, 3.64%p씩 낮았다. 정원이 1명 늘어날수록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0.06%p씩 낮아졌다. 운영기간이 1년 늘

어날수록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0.07%p씩 낮아졌다. 설립유형은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국공립과 법인·단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각각 5.08%p, 2.92%p씩 높았고, 직장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8.84%p 낮았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96%p 낮았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 보다 정원충족률이 12.79%p 높았다. 0-5세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다 0-2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각각 1.75%p, 34.57%p씩 낮았다.

2013년 1월 현황인 모형4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대도시와 비교해 정원충족률이 1.74%p, 5.34%p씩 낮았다. 정원이 평균에 비해 1명 늘어날수록 정원충족률은 0.06%p씩 낮아졌다. 국공립(3.87%p), 민간(1.91%p), 법인·단체(1.78%p)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보다 정원충족률이 9.61%p 낮았다.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보다 정원충족률이 4.16%p 낮았다.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직영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2.41%p 높았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 보다 정원충족률이 10.46%p 높았다.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6.55%p 낮았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50%p 높았다.

2014년 1월 현황인 모형5 분석결과를 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정원충족률은 대도시와 비교해 3.18%p, 5.91%p씩 낮았다. 정원은 평균에 비해 1명 늘어날수록 정원충족률이 0.03%p씩 낮아졌다. 운영기간이 평균에 비해 1년 길어질수록 정원충족률은 0.05%p씩 낮아졌다. 설립유형의 경우 국공립,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2.75%p, 2.99%p씩 높았고,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가정어린이집 보다 2.12%p, 10.40%p씩 낮았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4.21%p 낮았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 어린이집 보다 정원충족률이 4.06%p 높았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4.11%p 높았다. 0-2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0.86%p 높은 반면,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0.53%p 높았다. 특수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59%p 높았다.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현황인 모형6 중다회귀모형 분석결과를 일반특성별로 살펴

보겠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각각 2.43%p, 5.10%p씩 낮았다. 정원이 평균에 비해 1명 늘어날수록 충족률은 0.02%p씩 줄었다. 운영기간이 평균에 비해 1년 늘어날수록 정원충족률은 0.18%p씩 줄었다. 설립유형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30%p, 3.88%p, 11.03%p씩 낮았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03%p 낮았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5.20%p 높았다.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4.04%p 높았다.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34%p 높은 반면,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3.11%p 낮았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56%p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1. 주요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보육정책 및 양육수당의 확대에 격변했던 지난 6년간의 어린이집 이용변화를 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년도 1월 시점에서 어린이집 일반 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추세를 살펴보고,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횡단면 중다회귀모형 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해보니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상승세는 2013년 1월 약 8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84%대로 떨어졌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정원충족률 80-85% 정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어 현재 정원충족률이 유지된다면 당장의 어린이집 추가공급은 적을 것이라는 점이 기존 어린이집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수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4년 1월 43,909개소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5년 1월에는 43,776개소로 줄어들었다. 2012년 1월 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 숫자도 1,202개소에 달한다.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이 이 기간 동안 살아남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보다 15%p 이상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2015),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집들의 실제 정원충족률 감소 폭은 4%p 이상이다. 즉, 전체 어린이집수와 정원충족률로 판단하면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어린이집 확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까지 커졌다. 2013년과 2014년 출생아수도 2012년에 비해 줄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수가 감소하였는데(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건수 및 통태율 추이, 2015) 2015년 1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입장까지 밝혀(박선하, 2015) 어린이집들 정원충족률 감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정원충족률의 관련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 변화는 추세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 격차가 커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규모, 설립유형 중 민간 및 부모협동, 영유아 반 구성, 인건비를 지원받는 지 여부에 따라서는 정원충족률 변화 양상이 일정하지 않았다. 지역규모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정원충족률이 높았다. 선행연구들은 대도시에서 어린이집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송건섭, 최진, 2009; 이정원, 정주영, 최효미 외, 2014) 그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정원충족률로도 잘 나타났다. 그런데 대도시와 농어촌의 정원충족률 차이는 201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벌어졌다가 지난 1년 사이에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도시와 농어촌의 정원충족률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으로 추가공급이 적어 2013년보다 어린이집 수가 오히려 줄어든 반면, 신규인가 제한이 없는 대도시에는 어린이집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2012년 1월까지 정원충족률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13년 1월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잠시 높아졌고, 2015년 1월에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더 낮은 상황이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수가 지난 6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수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고르지 않게 늘다가 2015년 1월 오히려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2010년 1월에서 2011년 1월까지만 정원충족률이 높았다. 가정어린이집 수는 지난 6년간 크게 변한데 비해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그 수

도와 변화가 적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30%p 이상 낮았고, 지난 6년간 그 격차는 고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와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 변화가 심했기 때문이다.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는 6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에 비해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는 2011년 1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 1월까지의 점차 줄어들었지만, 2015년 1월 다시 늘어나는 등 변동이 컸다.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보다 2012년 1월까지의 정원충족률이 낮았으나, 2013년 1월 이후 정원충족률이 역전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공급은 제한된 상황에서 2012년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연령대의 보육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2012년 1월까지의 낮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었고, 2013년 1월 이후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수보육 실시여부, 설립유형 중 국공립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는 지난 6년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도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보다 정원충족률이 지속적으로 높긴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 최근 2년 동안은 줄어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차이도 점차 줄어들어 2015년 1월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운영기간, 위탁운영, 평가인증, 설립유형 중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는 지난 6년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운영기간의 경우 설치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정원충족률이 낮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최근 2년 사이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2010년 1월 직영 어린이집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았으나, 2011년 1월 역전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평가인증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도 2013년 1월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차이는 전반적으로 벌어졌다.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정원충족률이 낮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 첫째,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임금으로 써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원충족률 하락으로 인한 수입을 보전하려는 원장의 수익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전업주부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원장들은 낮은 임금의 보육교사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된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정도 어린이집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수당 지원액이 늘어난 2013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충족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액을 현재보다 인상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예산 지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수당 지원액을 늘리면 출생아수 감소와 맞물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저하는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양육수당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제한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향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정원충족률 차이도 크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높은 일반특성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지자체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아주므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하락을 최소화 시켜준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들이 원장이 될 수 있는 진로를 제한시키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길 때 권리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정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와 보육교사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3-5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30%p 이상 저조하고, 지난 6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기피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 2세에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만 3세가 아닌 만 2세부터 반 구성을 한다면 충족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늘고 있으나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모든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 가장 낮고,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어 현 상황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합리적인 것인지,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에서 제공되는 어린이집 일반특성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반특성 외에도 보육교사의 질, 접근성, 특별활동 등이 정원충족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지원서비스에 따라서도 정원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정원충족률이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만으로는 그 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양육수당 지원금액이 늘었고, 전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급은 늘었고, 출생아수는 감소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체계 변화의 영향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시체계 요인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미친 영향은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 추세만 보여줄 뿐 개별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변화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개별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변화는 각 년도 자료를 어린이집별로 병합하여 패널분석을 하면 알 수 있으니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패널분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패널분석의 첫 번째 년도에 설치되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이 패널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6년간 개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화를 패널분석하면, 2010년 2월 이후에 설치된 약 9,000개소의 어린이집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패널분석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원충족률 변화가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2013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비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독립변수인 어린이집 일반특성보다는 누리과정 도입,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와 같은 거시정책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시군구별 어린이집일람 현황은 어린이집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데, 2012년 이전까지의 자료와 이후의 자료는 주소 기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든 어린이집을 정확하게 매칭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2년 이후의 어린이집일람 현황은 시군구,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원장, 인가일, 정원 등을 통해 다중매칭할 수 있으니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별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해주기 바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정원충족률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6년간의 어린이집 운영변화를 돌아보고, 최근 어린이집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2015).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http://kosis.kr/>
- 권경미(2012).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 고려 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3), 29-51.
- 김갑순·김남연·이은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165-184.
- 김지혜·이대균(2013).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69-202.
- 김천국·김진희(2012). 장애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279-296.
- 박선하(2015). 전업주부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줄일 것. MBC NEWS.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200/article/3618648_14748.html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2013. 12월 말 기준.
-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 외(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소정·하지영(201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313-335.
- 송건섭·최진(2009). 지방자치단체 보육현황과 서비스효율성. **지방정부연구**, 13(1), 173-193.
- 신윤정·유재언·김혜영·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2015). 어린이집 일람 현황 각 년도. <http://info.childcare.go.kr/>
-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2015). 월별 폐지시설. <http://info.childcare.go.kr/>
- 유재언(2014a).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5-30.
- 유재언(2014b). 지역사회 영유아 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23-152.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연(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한국조세정책연구원.
- 정병오(2011). 장애아동의 보육실태와 보육시설 선택요인. **한국보육학회지**, 11(1), 75-101.
- 정찬우(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학부모 의식 조사: 대전지역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29(1), 185-206.
- 조은진(1998).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목적과 기관 선택기준.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91-208.
- 함영진·강소영·김경준·이희종(2013).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21일 / 게재 승인 6월 16일

·교신저자: 유재언, 아이오와주립대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과정, jjagijag@naver.com

Abstract

Enrollment Rate Chang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2010–2015

Jaeon Yoo

Over the past 5 years, child care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changed drastically. The enrollment rate of childcare centers had increased from January 2010 to 2013; however, since then it decreased by January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rollment rate change of daycare centers by characteristics from January 2010 to 2015. The information of all childcare centers of each year, 35,005 in 2010, 38,237 in 2011, 40,006 in 2012, 42,592 in 2013, 43,909 in 2014, and 43,776 in 2015, was drawn from the Databas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http://info.childcare.go.kr>) to conduct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alysis reveals that enrollment rate difference has been decreased by the specialized service, the public type, and the incorporation type. In contrast, enrollment rate difference has been increased by the committed management, the accreditation, the social welfare type, and the workplace type, whereas enrollment rate trend by other characteristics was erratic.

Key words: childcare center,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centers, child care policy, enrollment rate, big data